

제목: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큰 기쁨"

말씀: 마태복음 2장 1-12절

동방에서 박사들이 먼 길을 왔습니다.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곳은 아기 예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니다. 세상 적으로 볼 때에는 수준 낮은 장소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온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복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였습니까?

- 1) _____ 된 소식으로 혼란 할 수도 있습니다.
- 2) 헤아릴 수 없는 _____ 이 있습니다.
- 3) 전부 _____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그들이 걸어간 길은 _____ 길이었습니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개척 된 교회 (뉴저지 지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성탄감사	
선교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은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 (Hosea 10: 12)



성탄 주일 예배 Christmas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2장 1-12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2: 1-12 신약 2 페이지 Presider
- 말 씬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큰 기쁨"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Joyful Grace Rev. Kim
- 특별찬양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선입견)

정말 오래 전 70년대 TV가 생겼을 때 감기약 선전이 나온 적이 있다.

“디판토”라는 약인데 그 약은 유명한 코미디언 임희춘씨가 나온 선전이였다. 감기약으로는 탁월한 것이라고 선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선전을 기억하는 이유는 선전에 나오던 배경 음악 때문이다. 그 음악이 어린 나에게 정말 좋게 들렸다. 하지만 그 배경 음악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라는 것을 몇 년 후에나 알게 되었다. 삼성제약의 음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40여년이 흘러갔으나 그 배경 음악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면 유명한 슈베르트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디판토”와 코미디언 임희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 평생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기약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먼저 나의 생각에 들어온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선전뿐이겠는가? 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게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선입견이 생긴다. “저 사람은 신사일 것이다” 혹은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등... 나 나름대로 사람들을 결정하고 인사를 한다. 참 좋지 않은 버릇이 생기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한 순간 그렇게 선입견을 만들어 나가다가는 사업이고 일이고 오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손님을 맞기로 했다. 힘든 생활 가운데 먹여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서 그들의 닫힌 마음을 풀어내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짧은 인사를 대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보니 경직되어 만나는 관계가 아닌 좋은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서 감사(Thank you)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선교에 마음을 두고 많은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상에 뛰어들고 나니 전혀 딴판인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의 세계관은 어디에 갔는지 나 중심적인 생각과 피해의식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좋지 않은 선입견이 나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절 6절)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간직했다면 나의 좋지 않은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손님들 중에는 참으로 고약한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품고 따뜻하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선입견으로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들으면서 먼저 생각나는 “디판토”는 평생의 추억거리가 되었다. 이제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복음은 말이 없이도 힘 있게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리라 믿는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 11월모임

대림절 시작(Advent)	11월 29일(주)	4주간
성탄주일 예배	12월 20일(주)	예배 시
성탄절 예배	12월 25일(금)	오전 10시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목)	오후 11시 45분 - 오전 12시 20분
신년예배	1월 3일(주)	예배 시

5.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름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